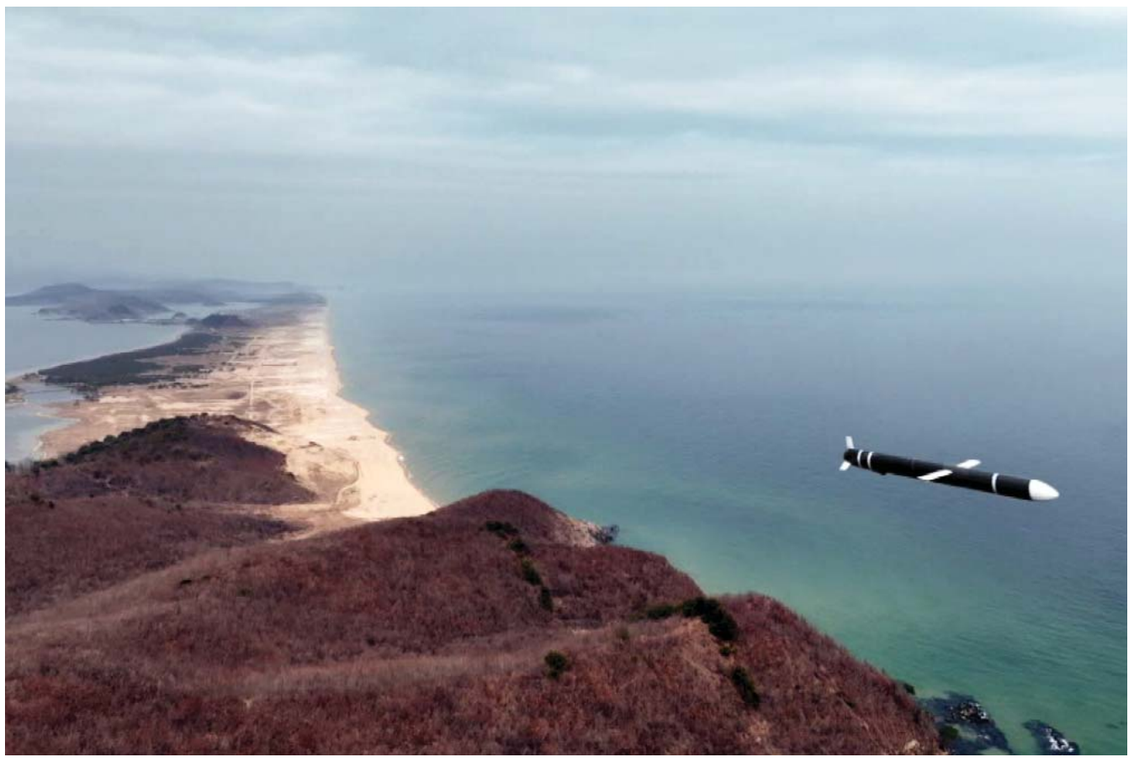
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3호 【루계 제2743호】

주체112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음력 윤2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 진행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의도적이고 끈질기며 도발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들과 대결자세는 조선반도의 군사정치정세를 되돌려세우기 힘든 위험수위에 가닿게 하였다.

방대한 핵전략수단들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기도와 그 수행력량, 그에 따르는 전쟁양상의 특수성은 우리로 하여금 전군의 전면전쟁준비와 함께 우선적으로 핵무력의 질량적강화를 필수적으로 제기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나라의 방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적들의 그 어떤 핵전쟁위협과 도전들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히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되는 군사활동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조직지도한데 이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또 다른 군사적공격능력의 시위로서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자위적핵력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들을 지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군사활동들을 지도하시였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우리 국방과학연구기관은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2012년부터 새로운 시대의 전쟁양상을 연구하고 제국주의침략군대의 군사기술적우세를 견제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의 발전방향을 규제하면서 새로운 작전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개발사업을 진행하여왔다.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이 수중핵전략무기체계가 비공개로 보고되였다.

이 비밀병기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되였으며 당대회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무려 29차의 무기시험을 직접 지도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작전배치가 결정되였다.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것이다.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수 있다.

지난 3월 21일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하였다.

시험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 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였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

3월 22일 전략순항미싸일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발사훈련에 앞서 핵공격명령인증절차와 발사승인체계 등 기술적 및 제도적장치들의 가동정상성과 체계안전성을 재검열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순항미싸일구분대들의 행동조법과 화력복무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숙련시키기 위한 훈련이 있었다.

전략순항미싸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가 장착되였다.

함경남도 함흥시 홍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조선동해에 설정된 1, 500㎞와 1, 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각각 7, 557～7, 567s와 9, 118～9, 129s간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발사훈련에서 순항미싸일의 초저고도비행시험과 변칙적인 고도조절 및 회피비행능력을 판정하는 시험도 진행하였다.

또한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을 다시한번 검증하였다.

중요무기시험과 발사훈련들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를 사사건건 무력화시키고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한 전투적과업들과 항구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제가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떠들고 동맹강화의 각이한 명분으로 지역정세를 위태하게 하는 군사적준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괴뢰역도들의 타산없는 무모성과 《용감성》을 키워주고있으며 주제넘는 행동을 부추기고있다고 엄책하시면서 서뿌른 망동으로 위험을 자초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있는 우리의 무제한한 핵전쟁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행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적들에게 다시한번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중단할것을 엄중히 경고하시였다.

공화국핵무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기대와 념원대로 전쟁광들의 대결망상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적인 전투적기능과 사명을 더욱 파괴적인 위력으로 제고해나갈것이며 압도적핵대응태세를 백방으로 비상히 강화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핵 반 격 가 상 종 합 전 술 훈 련 진 행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 3월 18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대규모적인 미국남조선련합군의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핵전략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지역에 투입되고있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단행되였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을 겨냥한 명백한 전쟁기도를 로골화하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확대시키고 공격성이 짙은 군사행동을 람발하고있는 적에게 보다 강경한 실전대응의지와 경고를 보내기 위한데 이번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이들에 걸쳐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핵타격지휘체계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에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3월 18일 전술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믿음성을 다각적으로 재검열하고 여러가지 가상적인 긴급정황속에서 핵공격명령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한 안전성견지에서 검열하면서 핵공격에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차 반복적으로 진행되였다.

1일훈련을 통하여 핵반격준비 전 공정이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고 믿음성높은 안전한 체계에서 운용되고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19일 오전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사격훈련을 강순남국방상과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련합부대장과 관하 동, 서부전선 각 미싸일군부대장들, 구분대지휘관들이 참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간부들과 미싸일총국의 지휘관들, 핵무기연구소의 해당 성원들이 참관하였다.

발사훈련에 앞서 최종핵공격명령인증절차와 발사승인체계 등 기술적 및 제도적장치들의 가동정상성과 안전성을 검열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조법들을 반복적으로 숙련시켰다.

이어 적주요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미싸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되였다.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되였다.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중요화력습격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구분대들의 실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모든 구분대들이 커다란 자신심에 충만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실전가상훈련들을 계속 조직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을 불의적인 정황에 익숙시키며 언제든 즉시적이고 압도적이며 능동적인 핵대응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며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핵무력건설의 중요방향과 핵무력의 전쟁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고도의 림전태세에서 적들의 준동과 도발을 철통같이 억제하고 통제관리할것이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주저없이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것이다.

본사기자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분노, 대담대결의지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침략전쟁연습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격멸의지가 온 나라에 무섭게 타번지는 속에 청년들의 참군열의로 강토가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무모하게도 《평양점령》을 꿰쳐대며 이 땅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전국적으로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온 나라의 일터와 학원들에서 거세차게 타번지는 청년들의 참군열의는 한목숨바쳐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지키려는 뜨거운 애국의 열의가 안아온것이다.

공화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에도 공화국에서는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무려 84만 9 0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용약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그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여러 차례 조선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섬으로써 적대세력들을 혼비백산케 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처럼 조국을 위해 한몸바칠 맹세를 다지며 조국수호전에 궐기한 모습은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애국의 열풍은 오직 자기의 생명, 자기의 청춘, 자기의 행복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청년들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공화국의 청년들속에서 날로 더욱 고조되는 참군열의, 이것은 수백수천개의 핵탄보다 더 위력하다.

적아간의 대결은 무장과 무장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이다.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으시대는 미국이 력대적으로 조선과의 대결에서 걸음걸음 쓰디쓴 참패만을 거듭하여온것은 바로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에서 패했기때문이다.

공화국에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청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얼마전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청년학생들은 가증스러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멸적의 구호들을 웨치고 전시가요들을 우렁차게 합창하면서 수도의 거리들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각지의 청년들도 복수결의 모임을 가지고 용솟음치는 젊은 힘을 조국보위성전에 바쳐 침략의 무리, 만고역적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 징벌의지를 과시하였다.

원쑤격멸의 의지와 필승의 기상,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믿음직한 청년대군이 있기에 공화국은 강대하고 적대세력들은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감히 다칠수 없다.

박 성 범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반영한 우 표 발 행

최근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반영한 새 우표(개별우표 8종)들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이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다.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호기차게 나아가는 명예기병종대의 모습을 반영한 우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한길따라 변함없는 한보폭으로 줄기차게 달음쳐온 우리 인민군대의 본연의 자세, 빨찌산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희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는 천하무적의 첨단화된 공격형 타격집단으로 자라난 전략미싸일종대들과 조선로동당이 지펴준 훈련혁명의 불길속에서 그 어떤 현대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열병대오들의 불패의 기상이 나래치는 우표들이 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백승을 떨쳐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힘있게 과시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분기해나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것이다.

본사기자

만복의 재부가 인민의것으로 되는 나라

원소주기계의 제11족에 속하는 누른색의 귀금속인 금.

황금의 빛이 인간세상에 흘러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회악과 불의, 부정의가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황금은 곧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그 세계에서 황금에 대한 끊을수 없는 유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황금의 노예로, 돈밖에 모르는 패륜아로 만들어놓을뿐 아니라 범죄와 타락의 길로 추동하고 떠밀고있다.

돈이라면 낳아준 부모에게도 서슴없이 칼을 들이대고 총을 란사하는 악의 땅, 소름끼치는 죄행을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뻐젓이 활개칠수 있는 자유가 있는 세상, 일확천금의 허황한 망상에 빠져 남을 등치고 해치는 허위와 기만이 만연하는 사회가 바로 황금의 천국 자본주의의 실상이다.

야수성과 인간증오로 지배되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이 황금만능의 사회에서는 온갖 욕망을 버리고 도덕, 정신수양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금욕주의도 결코 통하지 않는다.

물론 황금은 재부를 낳고 문명을 창조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그러나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가 하늘과 땅차이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특권층의 변태적인 문명과 호화의 불빛아래에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인생을 두고 비애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있다.

누가 더 많은 돈이나 황금을 소유하고있는가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의 수위가 결정되는 썩어빠진 이 사회에서는 불과 1%의 특권층을 위해 99%의 근로대중이 뼈를 깎고 피땀을 쏟고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오랜 력사를 거듭해오면서 인류에게 통용되여있는 황금의 상징적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놓은 전설의 나라가 있다.

어떤 정치제도,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황금의 가치가 달라지며 인민이 황금의 주인으로 될수도 있고 노예로도 될수 있다.

조선에서의 황금의 의미는 곧 인민의 복락을 의미하며 황금의 가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상징한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고 그 천만금을 들여 마련한 모든 재부는 오로지 인민의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국책과 시책으로 뚜렷이 실증하고있는 공화국의 력사는 말그대로 인민사랑의 력사이다.

그 사랑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에는 세상에 없는 황금산이란 뜻깊은 말도 태여났다.

해방후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에 대해 그토록 마음을 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평안남도 양덕군 은하리의 구지골을 찾으시였다.

마을의 한 농가에 들리시여 하루밤을 묵으시며 산간지대 농촌이 살아나갈 길을 집주인로인과 허물없이 의논하신 수령님께서는 자기 집에 수령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적어서 애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할아버지. 그보다도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라고 적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의미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라!

황금이 곧 인민의 행복을 상징하는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산은 많아도 산의 덕을 보지 못하던 인민들이 보물산, 황금산에서 황금의 열매를 따들이는 행복이 바로 그날에 시원을 두고있다.

오늘도 공화국인민이 즐겨 부르는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처녀들이 아침 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는 그 랑만, 황금열매가 붉게 무르익는 락원을 노래부르는 이 희열은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시대에 창작된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는 정말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열정이 솟구치군 한다고 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놓으신 황금산의 력사를 이어 이 땅을 황금나무 설레이고 능금열매 주렁진 사회주의락원으로 만드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어찌 황금산만 우리의 뿌듯한 긍지이고 기쁨이라 하랴.

그 황금산들에 올라 시원하게 바라보는 전야는 금나락이 물결치는 황금의 전야이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선들한 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경관이며 장관이다.

예로부터 거치른 목초만이 우거졌다고 하여 황초평이라 부르던 섬마을이 해마다 풍요한 대지에 벼낟가리를 높이 쌓아올려 황금평으로 그 이름을 새롭게 바꾼 사연, 금나락 물결치는 큰 벌을 끼고있다고 하여 봉건의 옛 지명을 털고 금야군으로 불리운 사연을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도 목메여 전하고있다.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열두삼천리벌의 한껏 영글은 벼바다가 해빛에 눈부심은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 황금의 광채이다.

피나게 땅을 걸구고 가꾸었어도 그 땅의 곡식을 언제 한번 가슴벌게 안아볼수 없었던 수난의 세월에야 이런 흐뭇한 화폭을 눈에 담을수 있었다던가.

제땅이 없는 설음이 너무도 모질어 땅에 씨앗이 아니라 눈물을 묻는다는 울분을 터쳐야 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가슴두드려 절규를 뿜어야 했었다.

그러던 이 땅의 농사군들이 황금벌의 주인이 되여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세세년년 황금낟가리를 높이도 쌓아갔으니 그 환희와 희열을 어찌 자본주의사회의 재력가들이 돈낟가리를 쌓는 치부의 멋에 비길수 있으랴.

산도 황금산, 벌도 황금벌, 바다도 황금의 바다로 만드시려 그리도 마음을 많이 쓰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103(2014)년 한해가 저무는 어느날 18호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룩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고기를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몸소 만선하고 돌아온 고기배에 오르시여 선창에 가득찬 물고기를 보시며 년간에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린다고,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류다른 콩풍경을 《이채두경》이라고 하였는데 물고기사태가 난 이 희한한 풍경은 《이채어경》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의미깊은 말씀의 뜻이 온 나라에 퍼져가는 사회주의바다향기에 어려 인민의 가슴을 울리였다.

진정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야말로 우리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물론 산과 벌, 바다를 리용하기는 사회주의사회나 자본주의사회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돈에 의해 모든것이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산과 벌, 바다가 재벌들이나 재력가들의 리윤추구와 상업적인 목적, 개인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산과 벌, 바다가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다.

산도 벌도 바다도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부로 되고있는 나라.

황금산의 과일대풍, 황금벌의 풍년이삭, 황금해의 물고기산이야말로 만금을 주고도 못사는 공화국인민의 만복의 자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우리의 3대전략자산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신것이 아닌가.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이렇듯 황금의 상징이 인민과 떼여놓을래야 떼여놓을수 없는것으로 된적은 없었다.

황금과 근로하는 인민, 그것은 절대로 하나로 융합될수 없고 결합될수 없는것으로 여겨져왔다.

가난과 궁핍, 기아와 빈궁, 무권리만이 인민의 징표였고 인민의 소유였으며 가질수 있고 누릴수 있는 자유의 전부였다.

그 불행속에서 벗어나고싶은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으로 된 깃털을 가진 게사니가 가난뱅이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세오리의 황금머리칼이 가난한 집 자식의 팔자를 고쳐주었다는 옛말들이 민간에 파다하게 퍼져돌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룰수 없고 실현될수 없는 공상이고 환상이였다.

짓밟히고 수난받는 사람들을 주눅이 들게 하고 머리조차 못들게 했던 황금.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고있는것은 오늘도 황금이다.

그래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인민을 황금의 노예라고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근로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이 땅에서는 황금이 인민의 소유가 되여 진정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것이다.

사람들이 꿈꾸고 념원하는 모든것이 황홀하게 이루어지고 평범한 인민들이 호화와 별천지의 주인이 되는가 하면 최상의 문명과 최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지닌 나라가 조선식사회주의이다.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이며 황홀하게 솟아오른 거리들의 집주인들은 과연 누구이던가.

바로 이 땅의 근로하는 사람들이다.

마식령스키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향유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저 북변의 중평과 련포에 솟아오른 대규모온실농장들도 인민을 위해 솟아오른 위대한 기적의 창조물이다.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낌없이!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현실이고 부정할수 없는 실상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은 흔히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는것이라면 나라의 자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타산이 없는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인민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여준다.

구태여 타산이 있다면 열백의 사랑을 주고도 어떻게 하면 천만가지 사랑을 더해주겠는가 하는 그런 타산만이 있을뿐이다.

바로 여기에 인민을 금방석에 앉혀주는 인민의 천국과 근로대중을 금전의 노예로, 황금에 깔려 신음하는 수난자로 발아래 굽어보는 자본의 천국과의 극적인 차이가 있다.

이 극명하고도 대조적인 차이를 그 어느 렬강이나 부국도 절대로 거부할수 없고 메꿀수도 없다.

황금은 이제 더 이상 막강한 재부와 재력을 가진 특권의 계층이나 특정된 부유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다.

세인은 이 조선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황금의 력사, 황금의 시대를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인민의 모습에서 보고있으며 인민의 웃음과 노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상징되는 황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있다.

국력이 강하고 끌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향하여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사회주의조선.

바로 이것이 인류가 목격하고 부러워하며 찬탄을 금치 못해하는 인민이 황금의 진정한 주인이 된 나라-조선이다.

그렇다!

인류사에 불변으로 되여있던 황금의 상징은 퇴색해버렸다.

인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민의 행복이 없고 인민의 생활이 비끼지 않은 황금은 막돌처럼 가치가 없다.

진정한 황금의 상징은 인민에게 있으며 황금의 가치도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가치에 비례한다.

이 정의를 공화국은 인민사랑의 력사로 세계앞에 증명하고있다.

력대적으로 굳어져온 황금의 낡은 가치를 부정하고 황금이 인민을 위해 리용될 때 빛을 발산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이 땅우에 뚜렷이 새겨주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그 사랑으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빛나고 눈부시며 그 전도가 창창한 공화국이다.

태양의 금빛해살이 사랑과 은정으로 펼쳐지는 더 좋은 래일을 밝게 비쳐주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번영하는 세월의 더없는 재부로 늘어만 가는 조선이야말로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락원을 일떠세우고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는 이 행성의 유일한 인민의 나라, 위대한 강국이다.

지난해 공화국의 누런 밀이삭 설레이는 드넓은 벌판에는 황금색으로 형상한 대형공화국기가 한폭의 아름다운 대전경화를 펼치여 세인의 눈길을 끌었었다.

황금의 빛으로 더더욱 찬란한 조선은 인민의 존엄과 기쁨, 행복과 더불어 끝없이 륭성번영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태 룡

단상

꽃피는 봄, 만발하는 인민의 웃음

거리거리에 봄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이 땅에 봄계절이 찾아온것이다.

봄, 가만히 불러만 보아도 봄의 정서와 따스함이 안겨들고 가슴은 부풀어진다.

누가 말했던가. 봄은 처녀와 같이 따뜻한 계절이라고.

양지쪽에서 묵은 풀잎을 헤치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과 나무가지들에 뾰족뾰족 움터나는 파아란 새싹을 보는 즐거움도 흥그럽지만 거리에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한껏 피여나는 웃음꽃은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수도의 거리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다.

봄볕에 움터나는 꽃들보다 먼저 봄의 정취를 자아내는 사람들의 저 밝고 아름다운 웃음꽃!

그 아름다운 꽃들을 키워주는 자양분은 과연 무엇일가?

나의 눈앞에 엊그제 취재길에서 만났던 한 도로관리공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난해 경루동에 이사했는데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것만같다며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호화주택의 주인이 되였는데야.

도로관리공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되새겨보느라니 문득 2년전 3월 송신, 송화지구에 울려퍼지던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의 장쾌한 발파폭음이 공명되며 귀전을 울리였다.

이틀후인 3월 25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신데 이어 며칠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적인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그로부터 불과 1년사이에 송신, 송화지구에는 80층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세대의 특색있는 대건축군을 일떠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는 하늘의 별무리를 지상에 옮겨놓은듯 특색있고 아름다운 호화주택구인 다락식주택구,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루동이 솟아올랐다.

지금도 송화거리 준공식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몸소 준공테프도 끊어주시고 새 거리, 새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그 미소가 숭엄히 어려온다.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의 위대한 인민사랑은 겨울을 이기고 찾아온 이해의 봄계절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있다.

지난 2월 평양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이 진행된 기쁜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얼마전에는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의 발파폭음이 봄하늘가를 뒤흔들어 온 나라를 더욱 흥성이게 했다.

열화의 인민사랑이 떠올린 이 땅의 웅장한 창조물을 바라볼수록, 이제 머지않아 화성지구와 강동지구에 솟구칠 변혁의 희한한 실체들을 그려볼수록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이름할수 없는 행복으로 끓어오르게 한다.

그럴수록 인민의 리상거리들과 대규모온실농장들이 일떠설 건설장들에 몸소 나오시여 발파단추도 누르시고 착공의 첫삽도 뜨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온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웃음꽃!

그것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시며 인민을 위해 천만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빛발이 자양분이 되여 피여나는 행복의 꽃이다. 그 웃음꽃과 더불어 이 땅의 봄은 더욱 환희롭고 아름답다.

유 금 주

수필

늘어나는 두 행렬을 두고

밤은 계속 깊어가도 온 마을의 집집에는 불이 꺼질줄 모른다.

아마도 우리 집처럼 옆집이나 앞집, 뒤집도 새집들이 경사의 기쁨과 환희로 잠을 다 잊은듯하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펼쳐져 흥겨운 새집들이소식이 련일 전해지는 속에 정월에는 부전의 문암농장에 사는 누이네가 멋쟁이 새집에 이사했노라고 자랑하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엊그제는 이웃군의 황홀한 새 마을의 이사소식이 전해지고 오늘은 또 우리 마을에 새집들이 경사가 꿈만같이 펼쳐졌다.

아직도 농악대를 앞세우고 온 마을이 한데 어울려 웃음속에 어깨춤을 추며 동구밖까지 쭉 이어져흐르던 기쁨의 이사행렬이 삼삼하게 보여온다.

그 행렬에는 우리 가정처럼 춤을 추며 새집에 들어서던 농장원들도 있고 남새분조장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선뜻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던 녀인들도 그리고 이 멋쟁이집이 정말 내 집이 옳은가고 거듭거듭 묻던 마을의 로인들도 있다.

생각할수록 가슴은 쩌릿해진다.

평범한 농장원인 나에게도 이런 희한한 새집이 차례지다니…

나의 눈앞에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울리며 마을의 길을 메우던 이사행렬과 함께 문득 얼마전 TV에서 본 이민행렬이 떠올랐다.

황색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길로 피난의 길에 오른 불우한 인간들의 모습. 남부녀대하고 끌이 보이지 않게 늘어선 사람들속에는 우리 막내아들또래쯤 되였을 아이가 등에는 젖먹이동생을 업은채 량손에는 《이사》짐을 들고 엄마의 뒤를 따라 눈물범벅이 되여 걸어가는 가슴아픈 모습도 있는가 하면 앙상한 몸을 지팽이에 의지하고 넘어질듯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로인들도 보였다.

피난처를 찾아 걷는 지친 그들의 얼굴에는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모지름과 함께 정든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이 력력히 슴배여있었다.

하지만 피난길에 오른 그들에게야 갈길이 열려있다고 살길이 열리고 희망이 보인다던가.

단지 죽음과 공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 몸부림으로 그들은 오라고 반겨줄이도, 따뜻이 품어줄 곳도 없는 그 어딘가로 정처없이 걷고 또 걷는것이다.

이사행렬과 이민행렬!

농촌진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이 땅에 옛 모습을 찾을길 없이 희한하게 일떠서는 보금자리로 날마다 끌없이 이어져흐르는 이사행렬과 분쟁의 참화속에서 살길을 찾아 이어져흐르는 이민행렬은 참으로 판이한 사회상을 응변해주고있다.

내가 만일 이 땅이 아닌 아픔과 불행이 가실 날 없는 그런 땅에 살고있다면 이민행렬의 수난자가 되는 운명을 결코 피할수 없었으리라.

그렇다!

오늘은 새집들이기쁨이 우리 마을에 차고넘쳤다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는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못할 행복과 기쁨이 련속 찾아들리라.

내가 새집을 받아안고 이렇게 환희와 희열로 잠 못드는 이밤에도 정처없이 계속 살길을 찾아 헤매일 불우한 인간들의 처지를 생각하노라니 이 가슴에 갈마드는 뜨거운 생각은 내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고마움이다.

다같이 인간으로 태여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어느 사회에서 사는가에 따라 매 개인의 운명이나 가정의 운명은 극과 극처럼 판이하게 갈라진다.

지켜주고 안아주는 품이 있어야 보금자리도 굳건하고 그런 품이 없으면 보금자리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것이 오늘의 행성에 펼쳐지는 현실이 보여주는 명백한 진리이다.

깊어지는 생각속에 지난 2월 수도의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장에 울리던 발파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리여준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살림집건설의 대전역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손길아래 이 땅에는 얼마나 무수한 인민의 보금자리가 새로 일떠서고 옛 모습을 전혀 찾을길 없는 아름다운 명화폭과 같은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새 주인들을 맞아들였던가.

그리고 앞으로 인민의 보금자리는 이 땅우에 얼마나 더 늘어나고 행복의 이사행렬은 또 얼마나 눈뿌리 아득하게 이어져흐를것인가.

늘어나는 이사행렬은 날로 흥해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모습이라면 늘어나는 이민행렬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이 그대로 비껴있다.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면 아무리 찾아헤매도 행복을 기약할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피난의 길에 오른 이민자들이다.

곱씹어 새길수록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내 집이 제일이고 이 집에서 대를 이어 복락을 누리며 그 사랑, 그 은정에 길이 보답할 마음이 이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한다.

정녕 이 지구상에 집은 많아도 진정으로 인민을 품안아 끌까지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운명의 집은 오직 하나 우리 원수님의 품이다.

그 품속에 인민의 행복넘친 보금자리,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세월은 끝없이 태여나고 끌없이 흐를것이다.

린산군 석련농장 농장원 유 국 현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로동당에 받아들인 종교인출신 녀맹위원장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이 한창 추진되고있던 주체35(1946)년 8월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일군이 전화로 올리는 한가지 비정상적인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남포시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면서 일부 사람들속에서 신민당원인 남포시 녀맹위원장 안신호가 그리스도교신자이기때문에 로동당원으로 될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는 사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뜸 노하시여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는것과 관련하여 지금 일부 나쁜 놈들이 별소리를 다하고있다고, 합당후 《대량적인 숙청》이 있을것이라느니, 두 당의 합당은 일시적인것이고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분렬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합당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고 이것은 다 혁명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반대하는 종파주의책동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일깨워주시였다.

신민당이 소자산계급의 정당이므로 우리가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제기할 때 이런것을 예견하지 못한것이 아니다, 앞으로 창건하려는 로동당은 어디까지나 대중적 정당이며 합당후 신민당의 소자산계급들을 능히 소화할수 있기때문에 우리는 민주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합당방침을 내놓았다, 그런데 반동분자나 이색분자도 아닌 사람들을 놓고 출신이 어떻소, 과거경력이 어떻소, 뭐가 어떻소 하면서 신민당원들을 배제하면 합당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안신호는 그리스도교인이지만 반일감정이 높았고 과거경력도 어지럽지 않으며 또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지지하여 건국사업에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여왔는데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계속 따라오는 안신호를 무엇때문에 떼버리겠습니까.

그러시고는 심각한 어조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를 떼버리면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를 생각해보시오.》

순간 일군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의 입당이 부결된다면 술한 그리스도교인들은 뭐라고 하며 그리고 시안의 녀성들속에서는 과연 어떤 반향이 제기되겠는가?)

생각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할번하였는가를 통절하게 절감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에 머리가 숙어졌다.

일군이 깊은 자책에 잠겨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렇게 되면 안신호뿐 아니라 많은 군중을 잃어버리게 될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언제나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군님, 이제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안신호의 로동당생활문제는 제가 꼭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안신호로 하여금 로동당생활을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와 관련하여 호지부지하는자들에게 당에서 그를 보증한다고 말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종교인출신 녀맹위원장은 로동당 대렬에 떳떳이 들어서게 되였다.

본사기자 황 금 숙

이역의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여

오늘날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애국위업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

이들이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내외의 도전과 압력을 짓부시며 애국의 길을 꿋꿋이 이어올수 있은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필승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주체60(1971)년 3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제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국방건설에 많은 돈을 쓰고있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수 있다, 지금까지 미제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정탐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해왔으며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왔다고 하시면서 1968년에 있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국방력 강화에 힘을 넣어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였기때문에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아무리 위협하여도 꿈쩍하지 않으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 할 일을 다하였다고 하시면서 고슴도치이야기를 해주시였다.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승리자의 쾌감과 조국의 전도에 대한 락관으로 마음흐뭇해하는 방문단성원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돌아가면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조국은 국방에서도 든든하다는것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역경속에서도 강하여 언제나 이기는 조국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주체83(1994)년 5월초 어느날 총련의 한 책임일군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조국에 와있는 동안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영웅적투쟁모습을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총련의 책임일군은 이번에 조국에 와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승리에 대한 신념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을 당해낼자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고 그이께 긍지높이 말씀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임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적들의 그 어떤 탄압속에서도 총련을 우리 공화국의 미더운 해외동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나서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한다는 인사를 올리였다.

만족하신 어조로 이에 사의를 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책동이 우심한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때문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려야 할 자금의 많은 부분을 국방공업에 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끄떡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사실 우리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군사적대결은 보통상식으로써는 리해하기 힘든 미증유의 대결이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국의 군사비지출액수만 놓고보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비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놓고볼 때 우리와 제국주의련합세력사이의 대결은 서방세계에서 떠들듯이 고슴도치와 호랑이와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이 련전련승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라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의 반동들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압살하려고 경제봉쇄를 강화하고있지만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경제제재에도 끄떡없다고 하시였다.

그 어떤 제재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고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는것,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군사경제적위력과 일심단결의 힘을 확신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같은 신념이고 배짱이였다.

근엄하신 표정을 지으시고 총련책임일군에게 사회주의조국의 크나큰 힘, 필승불패의 힘을 깨우쳐주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주체86(1997)년 4월에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85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이 제눈으로 조국의 현실을 보아야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1211고지 리수복중대, 지혜산중대와 안변청년발전소 등 자신께서 현지지도하신 로정대로 참관사업도 조직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총련일군들이 자동차로 달린 그날의 그 2 500리길은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담력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길이였고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한치의 드팀이나 순간의 변심도 없이 애국위업에 한몸 다 바쳐나가려는 영원한 동행자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한 길이였으며 총련애국위업의 전도에 대한 든든한 배심을 키워준 의의깊은 배움의 길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여주신 강력한 군력이 있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며 재일조선인운동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굳건히 심어주신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는 총련이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승리와 영광의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오늘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절대적힘을 비축한 불패의 강국으로 세계에 위용떨치고있는 어버이조국을 우러러보면서 신심드높이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나가고있다.

안 재 범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절세위인께 매혹되여 (1)

한생 펜으로 나라의 독립과 애국위업에 이바지해온 깨끗하고 량심적인 인간이였던 최일천선생.

필명으로 글을 쓴데로부터 사람들속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고 더우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반동들에게 암살되다보니 력사의 조명을 적게 받아왔던 그가 독립투사, 애국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민족의 어버이의 회고록을 통해서였다.

최일천선생의 한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일찌기 세상을 떠났고 오래동안 력사의 락엽속에 파묻혔던 한 지성인이 어떻게 되여 겨레와 후손들의 추억속에 길이 빛나게 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될것이다.

* *

최일천선생은 이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짙게 드리우고있던 1905년 10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소작농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으며 어릴때의 본명은 최찬선이였다.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1913년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선생은 중국인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부모들을 도와 농사를 지으면서 소학과정을 마치였으며 그후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하였다.

1920년 10월 일제의 《토벌》로 형과 마을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것을 목격하면서 복수심에 끓어넘친 그는 1921년초에 오동진사령의 독립군부대에 입대하였다.

선생은 독립군병사생활을 하면서도 중학교강의록을 구하여 계속 공부하였으며 그후 정의부에서 설립한 동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동진선생의 서기로 일하게 되였다.

최 일 천 선 생

선생은 정책적문제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글들을 《대동민보》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경영하던 신문, 잡지들에 기고하는 과정에 정의부내에서 문장가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러던 선생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하시고 길림으로 혁명활동무대를 옮기시였을 때였다.

선생은 오동진선생의 집에서 류숙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자주 만나뵙는 과정을 통하여 그이의 뜻과 인품에 매혹되였고 점차 수령님을 따르고 받드는 혁명동지가 될 결심을 품게 되였다.

최일천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주의진영안의 진보적인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민족주의운동내에서는 무분별한 세력다툼과 파벌싸움이 그칠새 없었다. 더우기 민족주의진영내의 편협한자들은 공산주의사상이 전파되는것을 두려워하며 새 사조를 따르려는 진보적인 청년들을 마구 살해하는 망동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선생은 이 파벌싸움과 동족살륙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지만 민족주의진영의 와해를 막지 못한채 가족이 있던 오가자로 가게 되였으며 삼성학교 교원을 하면서 청년회 회장사업을 맡아하게 되였다.

이러한 때인 주체19(1930)년 10월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장투쟁과 관련한 중요회의를 소집하며 겸하여 마을을 혁명화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오가자마을로 오시였다.

오가자에서 최일천선생을 만나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앞에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청년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신임에 의하여 새로 결성되는 오가자반제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선거된 선생은 오가자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며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혁명적출판물인 잡지 《농우》를 발간하도록 하시고 그 편집사업도 최일천선생에게 맡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발간된 《농우》는 최일천선생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간도에까지 배포되였다.

선생은 반제청년동맹 위원장사업을 하면서도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였으며 공주령의 도자판매소에 파견되여 지하사업도 벌려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선생은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한 인민들의 환희를 보았고 눈부신 천지개벽을 보았다.

불과 몇달사이에 시대사조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료하농촌이 어린이모두가 무료로 공부하고 누구나 병치료를 받으며 모두가 각각 자기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는 혁명촌으로 전변된 현실은 실로 천지개벽이라고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하해같은 인간사랑, 겨레사랑은 그대로 평범한 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인민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주의주장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였던 최일천선생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김일성》이라는 존함을 삼가 드리였다.

정녕 그 존함은 그 어떤 개인이나 계층이 아닌 전체 조선인민이 마음을 모아 지어드린 태양의 존함으로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통일단결과 령도의 중심, 위대하고 걸출한 령수를 맞이한 민족의 환호였으며 민족대통운의 상징이였다.

해방직후 최일천선생이 집필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대와 교조에 물들지 않은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전위조직인 《ㄷ.ㄷ》에 묶어세우시고 조선혁명의 령도의 중심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칭송되신 어버이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가 방불하게 서술되여있다.

선생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를 그토록 생동하고 방불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써낼수 있은것은 당시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그의 사상정신세계의 반영이였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화를 위한 책동

미국은 남조선경제를 식민지예속경제로 만들기 위해 자기 나라 발전선들을 부산, 인천 등에 끌어들여 전력에 대한 독점가격을 실시하고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아내는 한편 잉여상품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막대한 리윤을 얻었다. 또한 남조선경제를 전적으로 저들이 제공하는 동력, 원료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군정기간에 남조선에 준 《원조》는 철저히 남조선경제를 파괴하고 식민지예속경제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였다.

식량과 식료품들을 대량적으로 반입한것은 남조선경제의 기본명맥이였던 농업을 질식시키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들이밀기 위한것이였고 직물류를 끌어들인것은 방직업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중심의 남조선공업을 파괴하고 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한것이였다.

한편 미국은 친미적인 모리간상배, 투기업자들에게 무역에서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해주면서 《원조》로 들이미는 잉여상품을 도매하여줌으로써 화폐자본축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매판자본가들로 육성하였다.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에서 또 하나의 고리를 이룬것은 남조선의 재정적지반을 철저히 파괴하는것이였다.

미국은 8.15이후 남조선의 재정신용체계에 대한 소유권을 깡그리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제가 소유하고있던 일체 은행자본을 《군정재산》으로 선포하여 남조선 전체 은행주식의 90%를 틀어쥐였으며 일제말기 조선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한 《전매국》을 장악하였다. 또한 일제때의 《재정법규》그대로 50여종에 달하는 가렴잡세를 근로대중에게 들씌웠다. 그런가 하면 《조선은행》의 일체 재산과 관리권을 틀어쥐고 저들의 금융적착취와 략탈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조선식산은행》을 틀어쥐는 방법으로 남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적지배를 실현하였다. 탐욕적인 미국은 금융적예속과 략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 6월에는 환자거래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환금은행》을 조작하여 남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고 환자기관을 통하여 남조선경제를 예속략탈할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은 이와 같이 남조선의 재정과 신용, 국제결제 등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고 그를 남조선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실현을 위한 자금공급의 도구로 삼았다.

이처럼 미군정시기에 남조선경제는 균형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봉쇄당하고 미국의 식민지예속경제로 전락되였다.

본사기자 전 명 진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투쟁기운

남조선에서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41년이 흘렀다.

다 아는바와 같이 광주대학살만행을 통하여 침략자, 강점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목격한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1982년 3월 18일 가증스러운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시내도처에 수많은 반미삐라들을 뿌리였다.

《양키는 물러가라!》, 《미국의 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반미투쟁의 불길을 들자!》

악의 소굴에서 타래쳐오르는 불길과 함께 삐라에 씌여진 이 힘있는 글발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미국과 그 주구인 군사파쇼도당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남조선에 무겁게 드리운 식민지장막에 파렬구를 내며 힘차게 타오른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은 미국의 식민지강점정책에 대한 쌓이고맺힌 인민들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였다.

부산《미국문화원》에서 지펴진 반미투쟁의 불꽃은 그후 료원의 불길마냥 남조선전역으로 거세차게 타번져갔다.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맥아더동상철거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을 비롯한 반미투쟁들이 곳곳에서 전개되였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길가던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치떨리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온 남조선 땅이 반미의 초불바다가 되여 미국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미군사령부가 도사린 룡산미군기지내에까지 뚫고들어가 강점자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미제2사단기지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적요충지들, 침략전쟁연습장들도 남조선인민들의 주되는 투쟁목표로 되였다. 몇년전에는 《한국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 10여명이 서울주재 미국대사관 담장을 넘어 대사관안에 들어가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는것은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남조선인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지금도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아 지배와 간섭, 침략전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특등친미친일매국노인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침략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미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무시로 끌어들이고 미제침략군과 함께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는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을 반대배격하는 반미, 반윤석열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최근에는 《한국대학생진보련합》소속 대학생들이 룡산미군기지의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청사앞에까지 돌진하여 《핵참화를 부르는 련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한〉미일3각군사동맹 반대한다》, 《미국의 하수인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기습시위를 벌리였다.

이것은 민족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고 의로운 투쟁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가 계속되는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반미자주화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날로 더욱 고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위험천만한 훈련 북침공격기도를 드러낸

남조선에서 대규모련합상륙훈련인 《쌍룡》이 발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 상륙훈련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달초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북침을 노린 련합상륙훈련에 얼마나 환장이 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원래 상륙은 그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펼칠 때마다 상륙훈련을 꼭 포함시키고 특별히 힘을 넣고있는것은 공화국을 공격하고 점령하려는 그들의 침략적기도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의 이번 상륙훈련에서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진것이다. 지난 시기 려단규모에서 벌어진 련합상륙훈련이 사단규모에서 크게 펼쳐지고있는것은 연습의 공격성, 위험성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이 연습에는 1만 3 000여명의 병력과 함께 남조선해군의 대형수송함, 미해군의 상륙직승기모함 등 30여척의 각종 함선들과 스텔스전투폭격기, 공격직승기, 상륙기동직승기 등 70여대의 군용기, 상륙돌격장갑차 50여대 등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색, 정찰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해병대특수부대가 참가하며 오스트랄리아, 프랑스, 필리핀군관계자들이 훈련을 참관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수많은 추종국가들의 무력까지 동원시키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련합상륙훈련을 벌리는것을 보면 이미 리성을 잃었고 북침열기가 달아오를대로 달아올랐음을 알수 있다.

호전세력들이 벌리는 상륙훈련은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이번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에서 이 작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힘을 넣은것도 이번 연습이 사실상 반공화국《점령》훈련이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실전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련합상륙훈련은 그대로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5만여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약 1 000대의 비행기를 투입하였다.

이 엄청난 대병력이 월미도를 지켜선 인민군 한개 해안포중대와 한개 보병중대에 무참히 얻어맞고 3일간이나 상륙기도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월미도앞바다는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화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또다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상대에 대해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자들의 광태이다.

1950년대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가진 미국과 맞섰던 공화국이 오늘은 절대적힘, 초강력을 비축한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기념 열병식과 우주만리에 새겨지는 주체무기들의 눈부신 비행운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내외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지금이 1950년대가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침전쟁에 혈안이 된 적대세력들에게 속담을 하나 상기시킨다.

—남잡이가 제잡이된다.—

본사기자 김 정 혁

군사적허점만 드러낸 《강력한 대응태세》

요즘 남조선호전광들의 허세성객기가 내외의 더 큰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고있다.

미국의 용병, 대포밥에 불과한자들이 상전도 전률하는 초대강국인 공화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일전불사》, 《압도적대응》, 《결전태세》니 하는 호전적망발을 쉐치면서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수 없다.

원래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한 법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추태가 바로 그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것은 역적패당의 전쟁대결광기가 썩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고 가소로운 짓거리이기때문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반공화국전쟁책동을 벌리는 과정에 스스로 드러낸 군사적대비태세의 허점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호전광들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에 대응하여 공화국이 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과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진행하였지만 이에 대해 전혀 포착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여 골탕을 먹고 내외의 면전에서 개망신을 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군합동지휘통제체계의 보안을 담보할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있고 대규모 련합상륙훈련에 필요한 상륙함정들이 부족한 사실도 드러나 론난거리로 되였다.

지난해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였지만 미싸일방어체계라는것이 미싸일들을 제대로 탐지도, 요격도 할수 없는 부실한 체계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대북무력시위》라고 하면서 발사한 미싸일들이 목표로 날아가지 못하고 제 머리에 떨어지거나 비행도중 폭발하고 오작동으로 미싸일이 발사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져 세계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공화국이 자위의 핵억제력을 급속히 강화하는데 대해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허재비 같은것들이 초강력, 절대적힘을 비축한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과 맞서겠다고 오기를 부리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인을 웃기는 희대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군부가 북의 미싸일발사징후는 물론 미싸일궤적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다, 북의 기습적인 미싸일발사훈련에 말려들어 허둥대고있다, 군의 미싸일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 되였다, 상륙함정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호전광들의 군사적대결소동을 비난조소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무지와 무모에 객기가 더해지면 재앙을 낳는다고 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이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미련한 자멸망동이다.

김 혁

대결광신자의 허세성객기

얼마전 남조선의 윤석열역도가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머리를 들이밀고 《힘에 의한 평화》니, 《압도적대응능력과 응징태세구축》이니 하고 입방아질을 해댔다.

련이어 해군특수전전단을 찾아간 역도는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이라고 줴쳐대며 가소롭게 놀아댔다.

민충이가 겨우 쑥대우에나 올라가 장한체한다더니 제 처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자의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역도가 혀바닥에 올린 《힘》과 《압도적대응능력》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힘, 미국의 침략전쟁수행능력이다.

역도는 이것을 믿고 만용을 부리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공화국의 절대적힘, 초강력, 초강세에 역도가 하내비처럼 믿고 섬기는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있다.

지금 미국이 《확장억제력》이니, 《대응능력》이니 하고 떠들면서 전략자산들을 뻔질나게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소동을 벌리고 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 초강세에 얼혼이 나간자들의 허세성객기에 불과하다. 사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이러한 상전을 믿고 윤석열역도가 대결광기를 부리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자의 해괴한 망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우기 역도가 군사적대결소동에 내몰린 남조선군부대를 찾아가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이라고 추어주면서 대결의식을 고취하였는데 쓴웃음이 나갈뿐이다.

미국의 용병, 총알받이에 불과한 허재비들, 극도의 염전사상에 물젖고 전쟁공포증에 시달리는 오합지졸의 무리, 기강해이와 부패타락으로 하나의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전락된 쓰레기들을 놓고 《세계최강》이라고 입질을 해대고있으니 사고가 잘못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괴한 나발을 거리낌없이 내뱉을수 있단 말인가.

정말 극치를 이룬 역도의 아둔함과 무모함, 무분별한 짓거리의 대표적실례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가 민심과 여론으로부터 《무지스러운 전쟁불망나니》, 《허세성객기만 부리는 가소로운 대결광》,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윤재앙》이라고 조소와 비난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강 현 철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윤 〈정권〉이 끝내 일본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음라이스 한그릇에 피해자의 인권, 력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역도가 일본수상과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돌아온것과 관련하여 3월 17일 야당인물이 한 비판)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놓고 이것을 외교적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

(3월 20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

▶《맹목적숭일, 종일은 과거를 망각한 망국병이고 미래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3월 21일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립장문)

깨끗이 결산하리라

리 창 식

피가 끓는다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민족에게
뼈저린 아픔과 고통만을 강요한 원쑤
오늘은 우리 강토를 핵참화속에 잠그려
분별없이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들
씨도 없이 징벌할 멸적의 피가 타끓는다

《넌례적인 훈련》, 《방어적성격》
이제는 그 허울마저 벗어버리고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을 줴쳐대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핵전쟁연습에 피눈이 된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

덤벼들라
우리 삶과 운명의 하늘
어버이 계시는 수도 평양을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사는 인민이다
천만인민이 성벽되여 지켜선 평양이다

야만적인 제재와 압살의 봉쇄속에서
최강의 힘을 키운 우리의 군력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거부하는
철천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천백배 보복의 피를 끓이는 인민이다

맞서보자
보병총으로 원자탄과 맞서 이긴
지난 세기의 조선이 아니다
선랙권은 침략자에게만 있지 않거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체병기들이
침략자, 도발자들을 멸적의 조준경안에 넣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몸서리치게 깨닫게 하리라
쌓이고쌓인 우리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백배해진 우리의 힘
조선의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리라
세기를 두고 다져온 초강력
멸적의 활화로 터쳐
이 행성의 불행과 고통,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태워버리리라
철저히, 깨끗이 결산하리라

천년숙적에게 간도 쓸개도 다 섬긴다

우리 겨레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역적들을 을사오적에 비겨 단죄규탄하군 한다.

그런데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희세의 매국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위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일본을 행각하였다.

역도의 이번 행각은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에 《면죄부》를 준 반역행각이고 섬나라것들에 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구걸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굴종행각이였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는 군국주의 후예들에게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준 매국배족행각이였다.

윤석열역도가 《3.1절기념사》라는데서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가운데서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일본을 《협력동반자》로 추어올리는 역겨운 추태를 부린데 이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해결방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대가로 이번에 일본행각길에 오른 역도는 섬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과거사문제는 이미 해결되였다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서 《반성과 사죄》라는 말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착실한 리행》과 《독도령유권》문제까지 꺼내드는 일본것들의 오만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성노예소녀상건립을 그만두고 조선인강제징용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방해하지 말며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출을 리해하라고 강박하는 섬나라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였다.

이어 윤석열역도는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제 먼저 떠벌임으로써 일본것들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는 천하역적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런자에게 어떻게 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윤석열역도야말로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만고역적, 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특등사대매국노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역도의 이번 행각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회담》, 《속빈 경제성과와 혹만 붙인 외교》, 《평도 주고 알도 주고 국물까지도 다 주고 받은것은 하나도 없는 최악의 외교참사》, 《윤석열은 력사를 팔아 미래를 살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단죄규탄하며 대중적인 반윤석열, 반일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윤석열역도와 같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희세의 인간쓰레기가 《대통령》감투를 쓰고있는것이야말로 남조선의 더없는 수치이고 비극이다.

독사를 집안에 두면 화를 면할수 없는것처럼 윤석열역도와 같은 극악한 매국노,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조선에서 불행과 고통, 치욕과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 종처는 그 근원을 없애야 하며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겨레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

김 현 일

단평

매맞은 리유

《꼭같이 생겼다.》

단지 이 한가지 리유로 어떤 사람이 제 친구한테서 매를 맞았다.

이것은 지난해 남조선의 어느한 집에서 일어난 일을 남조선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하다면 대체 누구와 꼭같이 생겼기에.

마주앉은 친구가 윤석열역도의 상통과 신통히도 같아보여 사건의 당사자가 울컥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었다는것이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환멸과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친구지간에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을가.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우는 격으로 친구에게서 억울하게 욕을 본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윤석열역도가 가증스러웠을것인가. 하필이면 왜 내 얼굴을 닮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욕보게 하는가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어찌 그들의 가슴속에서만 타번진다고 하랴.

친미, 친일굴종정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서슴없이 팔아먹고있는 추악한 매국노, 무모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있는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미치광이,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희세의 역적에 대한 저주와 울분, 증오가 남조선 각계층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하는 짓거리마다 겨레에게, 인민에게 해되는 망동만을 일삼는 역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가슴속에 사무쳤으면 사람들이 역도의 상판을 그려놓은 표적을 겨냥하여 활을 쏘고 주먹으로 치는가 하면 원한의 《부적》불이기를 하고있겠는가.

민심을 등진자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앞날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주 광 일

대담

보수세력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비난의 목소리-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무지의 정치인》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윤석열투쟁의 도수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역도의 미련하고 우직한 대내외통치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크게 터져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기자가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대담을 나누었다.

기 자: 최근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윤석열역도의 무능과 무지, 전횡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연 구 사: 윤석열역도의 《대통령》당선 1년을 계기로 역도의 지지기반으로 되고있는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역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크게 터져나오고있다.

우선 역도가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 《무지의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보수세력들은 윤석열역도의 《국정》운영행태를 보면 집권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되는대로 말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보려는 욕망은 거의나 없이 《대통령놀이》에만 열중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하여 지난 1년간 각종 외교안보참사들과 자연재해, 사고와 재난들이 련발하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공개마당에서 쏟아낸 윤석열의 장광설은 《요점을 알기 힘든 란수표》, 《참모들도 리해하지 못하는 암호전문》이라고 야유조소하면서 《뼈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이 검찰의 지시, 복종문화를 집권층은 물론 사회전반에 강요하고있는것은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의 궁여지책이다, 고집과 독단으로는 《국정》을 운영할수 없다고 경고하고있다.

기 자: 윤석열역도때문에 남조선이 살벌한 《검찰공화국》으로 전락되였다는 비난도 날로 고조되고있지 않는가.

연 구 사: 그렇다. 보수의 《원로》라고 하는자들까지 기자회견과 토론회들에서 윤석열역도가 당선직후 《대통령실》이전과 같은 중대사를 한차례의 토론도 없이 말한마디로 결정하고 집행한것은 상상도 못할 재앙이며 검찰수사권확대와 경찰장악, 이전 《정부》출신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은 윤석열독재 《정권》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까밝히였다.

보수언론들도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것들과 《윤핵관》과 같은 정치깡패들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을 《쑥대밭》, 《콩가루집단》으로 만들어놓은것으로 하여 2016년 《국회》의원선거후보추천개입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있다, 시급히 정치적중립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파멸은 시간문제로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기 자: 최근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망동에 대한 보수세력내부의 동향은 어떠한가.

연 구 사: 남조선보수언론들과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가 집권이후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급급하다 못해 민족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3월 1일의 《기념사》에서까지 조선봉건정부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국권》을 상실하였다고 한것은 민족적자부심을 짓밟아버리고 력사를 되돌린 폭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역도가 최근에 있은 자기의 일본행각에 대해 《외교적승리》로 포장하는데 대해서도 일제의 강제징용범죄에 《면죄부》를 준것은 력사와 민족자존심을 짓밟은 망동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이처럼 윤석열역도는 민심은 물론 보수세력내부에서도 비난배격을 받고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도래할 윤석열역도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해주는것이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

최근 공화국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제36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되였다.

《과학기술의 견인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은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고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과학기술성과발표와 전시, 과학기술연단운영과 새 기술, 새 제품교류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과학교육부문,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기술자와 기능공 등이 참가하였으며 850여건의 가치있는 제안들과 4 500여점의 전시품, 5 000여점의 첨단기술제품, 특허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과학기술축전에서는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개발한 무궤도전차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기상수문학부문에서 내놓은 태풍과 황사를 감시하고 예보하는 체계와 산불위험을 평가하는 체계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석탄가스화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폐가스를 리용하여 스피룰리나를 배양하는 방법과 염소젖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공정, 장식마감건재를 생산하는 방법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효가 큰 새 기술, 새 제품들도 많이 출품되였다.

이번 과학기술축전에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도 전시되였다.

임의의 장소에서 호흡기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짧은 시간내에 할수 있는 휴대용흡입치료기와 신기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의학제품, 천연유기기능성식품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진행된 제36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은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조선의 국수-소나무

소나무는 사철푸른 바늘잎키나무로서 공화국북부의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높이 800m아래의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의 성장을 조절하는 엄혹한 겨울에도 푸른 잎새 변치 않고 설한풍을 꿋꿋이 이겨내며 마침내는 봄을 맞이하는것이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의지와 굳은 절개, 순결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강용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지조가 굳은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사시절 푸르고 억센 소나무를 민족적기상의 상징으로 내세웠으며 매우 사랑하여왔다.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남다른 민족적정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따라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행로에서 더욱 승화되였다.

백설천지속에서도 꿋꿋이 서있는 소나무의 기상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공화국인민들의 강의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형성된 소나무에 대한 인민들의 감정과 유산들, 소나무의 사회경제적의의 등을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고 소나무를 조선의 국수로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들어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담고있는 소나무는 이 땅우에 끝없이 푸르러 설레일것이다.

본사기자

2022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1)

김룡흥

장승준

김창유

김일성종합대학 자원과학부 실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룡흥

지하초염수자원의 탐사 및 취수기술과 관련한 대상과제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룡흥은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0여년전부터 그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지하초염수자원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서해안지역에서 그에 대한 탐사전제를 마련하고 성능높은 탐사기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의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결과 여러 제염소에서 유망한 지하초염수매장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리용함으로써 소금생산에서 커다란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장승준

산소-미분탄에 의한 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연구도입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승준은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지난 시기 그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대형보이라들에 성능높은 기류식 석탄분쇄기를 도입하여 많은 량의 중유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그는 련이어 국내무연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관념을 타파하고 중유를 전혀 쓰지 않는 산소-미분탄착화장치를 개발도입하기 위해 고심어린 나날을 이어왔다. 이번에 그를 비롯한 미분탄연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대형보이라에 산소-미분탄에 의한 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연구도입하는데 또다시 성공하였다.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첨단기술제품교류소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김창유

김창유는 농업부문에 소문이 자자한 《신양2》호복합균과 그것을 리용한 유기질비료생산기술의 개발자이다.

고난의 시기부터 그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높은 효과를 담보할수 있는 복합균을 얻어내기 위해 전국각지를 오가며 시료를 채취하여 무려 1만 6 000여종의 균을 분리하였다. 그가운데서 국내기후풍토에 적응된 활성이 높은 수십개의 균종들을 하나하나 골라 《신양2》호복합균을 만들어내기까지 그가 겪은 고뇌는 이루 말할수 없었다.

이렇게 만든 《신양2》호 복합균으로 생산한 유기질비료 한t의 효과는 일반퇴비 20t과 맞먹을뿐 아니라 정보당 알곡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불과 몇해동안에 도입면적은 부쩍 늘어났다.

본사기자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2층뻐스

요즘 평양의 거리들로 새로 만든 2층뻐스가 달리고있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회색과 검은색의 갈기를 날리는 홰불처럼 형상한 겉면과 전자시계를 설치한 차체앞면은 시원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있다.

진동과 소음이 없는 2층뻐스는 속도가 좋을뿐 아니라 계단이 넓어 오르고내리는데서 불편이 없게 한다.

편안하면서도 포근한감을 주는 의자들과 은은한 빛을 뿌리는 천정등들은 안온한감을 주고있다.

따스한 온풍기로 하여 겨울철에도 몸이 훈훈해지는 2층뻐스에는 액정TV가 설치되여있어 손님들은 여러가지 동영상들을 시청하면서 목적지로 향한다.

낮에도 보기 좋지만 밤에 달리는 모습은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싣고 새형의 2층뻐스는 수도의 거리를 누비고 있다.

본사기자

봄철 건강관리를 잘하려면

봄철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이미 있던 질병들이 도지게 된다.

그것은 센 바람과 자주 오르내리는 기온변화로 하여 인체의 생리적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사람의 몸이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식물신경계통의 기능이 활발해지지 못한다.

결국 면역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기관지염 등에 쉽게 걸리게 된다.

봄철기후의 이러한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몸단련을 잘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이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나이, 체질에 맞게 가볍고 단순한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달리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5~6분정도 천천히 달리다가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20분정도로 시간을 늘여야 한다.

운동후에 온몸이 달아올라 피부가 습윤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밥맛이 당기고 잠이 잘 오면 알맞춤한 것이다.

봄철에는 호흡기관리를 잘하는것도 중요하다.

소금물로 입안과 목안을 자주 가셔내며 이발마주치기, 목부위찬물마찰 등의 방법으로 호흡기를 단련하여 감기, 편도염, 후두염, 기관지염, 폐염 등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본사기자

각지에서 나무심기 활발히 진행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열의가 뜨겁게 분출하는 속에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떨쳐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주변들에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그들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그루 살렸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자각하고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강원도에서도 땅이 녹은 상태를 잘 따져보고 적지들을 확정한데 기초하여 조성목적에 따르는 수종배치와 나무모보장사업을 적극 앞세우고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심는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정성을 기울이며 애국의 마음을 함께 묻고있다.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를 풍치수려한 항구문화도시로 꾸릴 일념을 안고 적지들에 구덩이를 잘 파고 부식토도 충분히 주면서 나무심기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이들은 하루에만도 소나무와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

개성시에서는 단위별로 적지를 선정해주고 나무모보장을 따라세우면서 시안의 근로자들이 모두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무심기를 실속있게 내밀고 있다.

한편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 나무심기를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얼마전 시안의 청년들은 보통강혁명사적지에 잣나무와 소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나라의 산들은 나날이 더욱 푸르러가고 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봄도 한철 꽃도 한철
청춘은 누구에게나 한때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

❖ 봄소나기 삼형제
봄에 오는 소나기는 세번에 걸쳐 온다는것을 이르는 말.

❖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가서 헤여본다
벌려놓은 일을 깐지게 처리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리는것을 이르는 말.

사화

밥맛을 돋구어주는 토장 (3)

글 전 철 호, 그림 채 대 성

안해는 너무 안타까와 사정하며 말했다.

《이보세요. 콩비지가 그렇게도 맛이 없으세요? 그럼 무슨 음식이 생각나세요, 예?》

그 말에 덤덤히 앉아있던 고달이 입을 열었다.

《무얼 먹고싶은가고? 가만… 그런게 하나 있긴 있소.》

안해는 너무 좋아 고달의 손을 덥석 그러쥐였다.

《뭔데요? 어서 말하세요!》

《내 젊었을적에 군사로 나가있던 전장에서 말이요. 메주죽이란걸 참 맛나게 먹었소.》

《메주죽이요?》

안해는 난생처음 듣는 소리에 두눈이 둥그래졌다. 세상에 메주는 있어도 그걸로 죽을 쑤어먹는다는 소린 여직 듣지 못했다.

고달의 생각은 스무해전으로 거슬러갔다.

변방에서는 싸움이 빈번하였다. 외적들이 고조선의 령토를 수시로 침입하였다.

어느해 이른봄, 한무리의 외적이 고달이 군사로 나가있는 산성에 달려들었다.

싸움은 처음부터 치렬하고 간고하였다. 성을 무너뜨려야만 고조선땅으로 깊숙이 쳐들어갈수 있음을 잘 아는 적들은 악착하게 덤벼들었다.

싸움준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여러날이 흐르자 아군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겨났다. 화살도 떨어지고 병력수도 줄어드는데 보다 큰 애로는 군량이 바닥난것이였다. 적들이 대군으로 성을 포위하다보니 보급로가 끊어져서였다.

이런 형편에서 진장(한개 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은 화식병들에게 군사들이 가지고있던 콩떡을 전부 모아들이게 하였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여기 산성으로 올때 백성들이 군사들에게 성의껏 많은 콩떡을 쳐주었던것이다.

콩떡을 모아보니 태반의 콩떡에 허연 곰(곰팽이)이 쓸어있었다.

여러날의 격전에서 제때에 먹지 않고 아껴 남겨두었던것이 누기를 받아 곰이 낀 모양이였다.

진장이 그것을 하나 들고 뻐개려 하니 부슬부슬 부서졌다.

《허- 메주 한가지로군.》

진장은 허연 곰이 낀 콩떡을 그냥 먹으면 배앓이를 할수 있다면서 끓이게 하였다.

소금을 약간 치고 펄펄 끓인 죽은 별나게도 그 맛이 들큰하고 구수했다.

뜨끈한 메주죽을 한그릇씩 받아든 군사들은 천하별미라면서 맛있게 먹었다.

가렬한 싸움은 인차 끌나지 않았다.

병력수가 줄어들자 화식병들도 싸움판에 나가야 했다.

화식병들은 남은 메주를 몽땅 질항아리들에 담고 짭짤할 정도로 소금을 탄 물을 꼴딱 부어넣었다. 메주덩이를 짠물에 담아놓으면 허연 곰이 더 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사실을 안 진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군사들에게 익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그것을 끓이라는 령을 내렸다.

맹물을 조금 더 두고 쑨 메주죽은 멀건 죽이였는데 맛은 이전보다 한결 더 별맛이였다.

이상한것은 질항아리에 둔 메주로 쑨 죽이 날로 달아지고 구수해지는것이였다.

화식병들의 말에 의하면 소금물속에서 메주가 익어지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한번 익은 음식이 소금물속에서 또 익어지다니…

군사들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고 화식병들을 나무랐지만 메주죽그릇을 받아들 때면 너무 맛이 좋아서 허가 다 말려든다고 칭찬하였다.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메주죽을 먹으면서 아군은 용기백배하여 마침내 외적을 물리치였다. 줄행랑을 치는 적들을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 쳐부시는 싸움에서 고달은 많은 적을 잡았다.

그 공으로 승전고속에 왕검성으로 입성하여 나라님이 하사하는 상을 받았고 그길로 활쏘기시합에 나가서는 백발명중의 명궁술을 떨친것이였다.

고달의 이야기를 감동깊게 듣고난 안해는 메주죽을 쑤는 일에 두팔걷고 달라붙었다.

콩떡을 빚어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더니 과연 며칠 지나 허연 곰이 생기면서 갈라터지였다. 그러니 콩떡이 메주로 변한것이였다.

콩떡의 속에까지 곰이 쓸자 안해는 부엌에 질항아리를 들여다놓고 그것들을 옮겨넣었다. 그다음 군사들이 든 짠물은 가둑나무잎을 우려낸듯 밤빛이였다.

고달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옛적에 화식병이 끓여주는 메주죽을 달게 받아먹으면서도 언제한번 메주덩이가 든 질항아리안을 들여다본적이 없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고달은 손가락으로 짠물을 찍어 입에 가져다댔다. 들척지근하고 향기로왔다.

《하여간 메주죽맛을 보아야 알겠소.》

안해는 메주죽을 부글부글 끓여 조금 맛을 보았다. 들척지근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별스러웠다.

과연 이게 남정네의 입에 맞겠는지…

안해는 마음을 조이며 메주죽을 점심상우에 올렸다.

궁금한 마음으로 상을 마주한 고달은 메주죽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전장에서 먹어본것과 비슷한 냄새였다.

고달이 한입 떠먹기 바쁘게 안해가 물었다.

《맛이 어때요?》

《가만…》

두번, 세번 메주죽을 떠먹어보더니 고달은 웃음을 함뿍 지었다.

《틀림없어. 그 맛같애. 헌데 너무 짜구만.》

그럴만도 하였다. 전장에서는 군량난으로 메주죽을 묽게 쑤어먹었지만 안해는 되게 끓인것이였다.

《참, 아침밥이 남아있어요.》

풍부한 우리 말의 유래

《랑패》

《랑패》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였다.

랑패란 짐승이 있었는데 랑은 수컷, 패는 암컷이다.

그런데 패는 앞다리가 짧아서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반드시 랑의 등허리에 앞발을 얹고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랑만 놓치면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게 되여있었다.

《랑패》는 《랑을 잃은 패》라는 뜻으로 《꼼짝 못하게 된 처지》나 《여지없이 망가진 일》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옛말 네 형제의 돌나르기

어느날 아버지가 담장을 쌓을 돌들을 날라오라고 네 형제에게 분부하였다.

그들은 저마끔 작은 돌을 골라서 날라왔다. 큰 돌은 서로 밀면서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중에 제일 큰 돌이 하나 남았다. 형제들은 그 돌을 함께 날라오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모두 힘든 시늉을 하면서 《영차》 하고 돌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맏이가 생각하였다.

(작은 돌을 나를 때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다녔으니 이번에는 힘을 쓰지 않을테다.)

둘째와 셋째도 (넷이서 돌을 함께 드니 내가 힘을 쓰는지 안쓰는지 알게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손맥을 놓았다.

넷째는 형들보다 한수 더 써서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순간 큰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발등을 찍었다.